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영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노인참여자의 태도 분석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지 영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노인참여자의 태도 분석

장 영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지 영

인 준 서

이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로 노인참여자는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세대통합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어떠한가?
 - 1) 노인에 대한 인식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노인에 대한 인식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노인에 대한 인식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선호는 어떠한가?

3.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 1)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2009년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 3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인식 및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1:1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는 이선자(1989)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김광숙

(1987)의 ‘노인관 척도’에 의거하여 정미실(1996)이 제작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노인참여자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월 16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참여자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유아-중고령 여성 협력망 구축 관련 워크숍 자료(교육과학기술부, 2007)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인참여자 5명과 사회복지사 2명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유아의 노인참여자에 대한 인식 및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t검증과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노인참여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문제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음된 면담자료는 전사 한 후,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은 노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들은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 특징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사회활동 능력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대인 관계가 유아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서는 만 3,4세 유아들이 만 5세 유아들보다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과 함께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한 노인참여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에는 여성인 경우보다 유아들이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들은 노인참여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활동을 선호하였다. 유아들이 선호하는 노인들과 함께 하는 상호작용적인 활동에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이 모두 포함 되었다.

넷째,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의 태도는 특히 건강 및 외모 등 신체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노인참여자는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로 생긴 소득에 대한 경제적인 측에 대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태도를 나타냈다.

다섯째,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여성 노인참여자가 남성 노인참여자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참여자의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집단이 가장 긍정적이 태도를 보였다. 또한 노인참여자의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한 기간에 따라서는 3년 이상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6
1. 세대통합프로그램 개념 및 필요성	6
2. 노인의 개념 및 노인의 특징	9
3.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관련 선행연구	13
4.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관련 선행연구	15
III. 연구 방법	18
1. 연구대상	18
2. 연구도구	22
3. 연구절차	26
4. 자료분석	29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0
1.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30
2.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선호	34
3. 노인참여자의 태도	38
V. 논의 및 결론	66
1. 논의	66
2. 결론 및 제언	74

참고 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 유아들의 일반적 특성	19
<표 2> 연구대상 노인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19
<표 3> 면담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21
<표 4>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검사	23
<표 5>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선호	24
<표 6> 노인참여자의 태도에 관한 설문지	25
<표 7>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30
<표 8> 유아의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	31
<표 9> 유아의 연령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	32
<표10> 노인의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	34
<표11>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선호	35
<표12> 노인참여자의 정서·심리적 측면	38
<표13> 노인참여자의 사회적 측면	42
<표14> 노인참여자의 신체적 측면	47
<표15> 노인참여자의 경제적 측면	50

<표16> 노인참여자의 아동관	53
<표17> 노인참여자의 교육적 기대	56
<표18> 노인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태도	59
<표19> 노인참여자의 연령에 따른 태도	61
<표20> 노인참여자의 학력에 따른 태도	62
<표21> 노인참여자의 참여기간에 따른 태도	6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조부모, 부모, 자녀의 3세대 이상인 확대가족이며 이러한 가족 형태에서는 윗세대와 아래세대간의 애정적인 상호작용 및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특히 전통가족형태에서 유아들은 조부모세대로부터 온정적인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받으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였으며, 다양한 계층과의 접촉으로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노인세대 또한 손자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역할 상실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핵가족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세대 간의 교류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 단절로 인한 세대 간 고립은 노인들에게 가족과 사회로부터 심리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다. 유아들에게는 노인에 대하여 늙고 병들었으며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였다(한현지, 2005).

실질적으로 조부모는 풍부한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를 전수시키고, 노인의 푸근함과 따뜻함으로 젊은 교사나 부모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역할수행은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황정숙, 2001). 또한 젊은이들의 노인공경 및 예의범절이 무색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조부모들은 유아들에게 예의범절 전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가 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조부모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여 줌으로써 손자녀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황정숙, 2001). 뿐만 아니라 유아는 자연스럽게 인간 간의 노화과정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에게는 자신의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노인과의 뜻 깊은 만남의 기회를 가지게 되면 노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Rosencranz & McNevin, 1969 : 광경란, 2007에서 재인용). 가정안에서의 노인과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서 노인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유아는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할 수 있다(Charlotte, 2009).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 노인과의 만남은 유아에게 노인에 대한 이해 및 노령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전통사회의 직계가족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한 세대로 키워 나갈 수 있다(박명숙, 2003). 즉 유아와 노인을 연계함으로써 과거 확대가족의 장점을 이어 받을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이 두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들의 세대통합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참여 등은 노인에게 역할 상실에서 벗어나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주며, 자아효능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은주, 2005; 이승자, 2007). 장영희(2007)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강사 파견 사업이 노인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을 갖게 하며, 유아들에게는 노인세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상한 보살핌과 교류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권오정(2004)은 유치원에서의 유아 연계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인성 수준을 상승시켰으며,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공동체 의식, 사회성 발달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과 유아가 함께 활동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유아, 부모, 교사 모두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서영숙, 1996a; 심재선, 2005; 한현

지, 2005). 유치원에서 노인복지회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유아에게는 노인으로부터 삶의 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노인에게는 활동하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곽경란, 2007). Stephanie(2000)도 세대통합프로그램은 유아와 노인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두 세대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세대통합프로그램은 노인 세대에게 사회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유아들에게는 조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온정적인 사랑과 지혜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래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노인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시니어 클럽 및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대통합프로그램 연구는 정책적인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김종관, 2003; 오윤희, 2003; 이영남, 2001; 장정숙, 200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활용 실태 및 인식조사(나향진, 2003; 박명숙, 2002; 이원표, 2005; 한현지, 2005)등의 연구들이 주류로 이루어져 왔을 뿐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유아와 노인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세대통합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교육기관 및 노인복지회관 등 관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세대통합프로그램이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노인참여자는 세대통합프

로그래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세대통합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어떠한가?
 - 1) 노인에 대한 인식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노인에 대한 인식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노인에 대한 인식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선호는 어떠한가?

3.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 1)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세대통합프로그램

세대통합프로그램은 현대사회에서 단절되어 있는 노인들과 유아들이 유아교육이라는 장을 통하여 서로 교류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다(김종관, 2003).

본 연구에서 세대통합프로그램이란 노인과 유아 집단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동화 구연, 노래 및 율동, 예절 교육, 영어, 전통놀이 체험 등의 놀이 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감으로써 세대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노인참여자

노인복지회관 등의 전문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과 함께 구연동화, 노래 및 율동, 예절교육, 영어, 전통놀이 체험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만 6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의 노인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세대통합프로그램의 개념 및 필요성

세대란 일반적으로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네이버 사전). 이러한 세대는 동일한 시간상에서 동질적 경험과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의 토대가 되는 어린 시절의 경험 차이와 세대간 연결고리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세대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이런 세대갈등은 영원히 해소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Mannheim, 1952; 한정란, 2005에서 재인용). 이처럼 어느 사회에서나 세대 간의 갈등 및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나친 갈등이나 대립은 사회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이가옥 외,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세대통합프로그램이다.

세대통합프로그램은 여러 세대 혹은 연령집단들이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인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활동해 나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한정란, 2005). 하지만 현대는 노인수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 세대와의 접촉 부족한 실정으로서 노인과 다른 세대와의 세대통합프로그램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세대통합프로그램은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접촉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들과 함께 경험하고 학습하는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65년부터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세대 간의 괴리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Throp, 1985:

기영화, 2007에서 재인용). 세대통합프로그램은 유아와 노인이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장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아와 노인은 서로의 성장과 함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허은주, 2003). 또 다른 견해로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세대 간의 협력, 상호작용 및 교환을 증가시키는 활동 또는 프로그램’으로 정의 내리며, 세대 간 화해와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Manheimer, 1997). 이처럼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세대 간 교류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세대 간의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화합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대통합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노인 인구수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역할상실이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 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9년 현재 65세 노인인구는 51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6%를 차지하는 노인인구 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9.6). 또한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많은 노인들의 건강한 신체와 노후의 시간을 보장해 주었지만, 산업화 및 짧아진 정년기간과 함께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들은 사회와 가족 내에서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노인들은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손자녀에게 과거의 가족사나 생활사를 전달해 주고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의 다양한 능력과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상실된 지위와 역할을 얻고, 삶의 보람과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사회활동이 요구된다(Conner & Bultena, 1979). 세대통합프로그램은 노인인력 활용을 통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할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유지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

둘째, 현대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세대 간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는 굳이 세대통합을 위한 인위적인 교육상황을 구성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가정 내에서 세대 간의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핵가족이 보편화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세대 간의 접촉 기회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세대 간의 단절은 세대 간의 반목과 오해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서로에게 편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Franks 외(199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대통합프로그램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조부모를 포함한 의미 있는 노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억을 지니게 하며, 노인에 관한 젊은이들의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불식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Franks 외, 1993: 기영화, 2007에서 재인용). 17~50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세대통합프로그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조부모 및 의미 있는 노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젊은이들은 규칙과 관습, 타인에 대한 존중, 끈기와 인내, 꿈과 가족적 유대감등을 배울 수 있었으며,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한 변화는 상대적인 것으로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Cyphert & Boggs, 1981). 따라서 세대통합프로그램은 세대 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수정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교류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셋째, 전통문화의 전수와 정신문화의 위기에서 또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통적 확대가족 내에서는 조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가족사를 옛날이야기 처럼 듣고 자라며, 부엌일이나 밭일의 일손돕기를 통하여 전통의 방법과 기술, 그 속에 숨은 삶의 지혜까지도 배울 수 있었다(한정란, 2001).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하여 유아와 노인 세대는 서로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세대 간의 상호작용의 기회는 감소하고 유아들은 조부모로부터 과거의 전

통과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Newman, 1980). 뿐만 아니라 급속한 사회변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유행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들과 그 정신은 낡고 촌스러운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대통합프로그램은 사회의 유산과 문화, 전통을 만들어 온 노인들로부터 직접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으며, 그 맥이 전 세대에서 후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한정란, 2001).

2. 노인의 개념 및 노인의 특징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국가의 문화 및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어 노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노인은 자신이 느끼는 자각적 나이와 노인의 신체적 달력의 나이, 신체적 성숙이나 건강수준에 따른 생물학적 나이, 심리적 성숙과 적응에 따른 심리적 나이, 사회규범에 따른 사회적 나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노인을 분류할 수 있다(윤 진, 1985). 즉, 한 개인을 노인으로 구분할 때는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을 규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생활연령 기준에 따라 세 계층으로 분류 할 수도 있다(Atchley, 1985). 우선 연소노인은 55~65세의 연령이 해당되는 사람들로 대부분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승인 면에서 최고수준에 이른 사람을 말한다. 중고령노인은 65~75세의 사람들로 대부분 직업에서 물러나 퇴직한 상태이며, 고령노인은 75세 이상으로 신체적으로 노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병약하며 의존상태에 있

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또 다른 견해로서 노인을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맞이하는 사람들로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쇠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안영선, 1993). 우리나라에서도 만 60세를 ‘회갑년’으로 기념하고 이때부터 어르신으로 대접해 온 전통이 있으나, 현대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을 각각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한정란, 20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노인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쇠약해지고,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며 여러 면에서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특징을 신체적 측면, 지적 측면, 성격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노인의 신체적 특징은 노화로 설명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적으로는 머리가 빠지고 희어지며, 청각과 시각이 감퇴하고, 피부에 주름과 얼룩반점이 생기며, 탄력이 없어진다. 내적으로는 근육의 힘이 감소되며 신장의 여과 기능과 뼈조직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Harris & Cole, 1985). 뿐만 아니라 노인은 신경계통의 구조적 변화와 기능적 변화로 수면의 질이나 양이 줄어들고 소화기능의 쇠퇴를 가져오며 피로를 빨리 느끼게 된다. 또 혈액순환이 느리고 불규칙하며, 호흡 작용의 효율성이 줄어들고, 유기체의 생리적인 적응력이 감퇴되어서 체온 통제나 피로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다(Bromley, 1990).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노인들의 정서불안 및 욕구불만 등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노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활동성의 쇠퇴 등으로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한현지2005).

노인의 지적인 특징에 대하여는 18~25세 이후부터 지능이 점진적으로 쇠퇴한다는 견해(Wschler, 1958)와, 또한 17세까지 지능이 상승하다가

25세 이후 서서히 감퇴한다고 보는 견해(최순남, 1984)가 있다. 반면 연령 증가에 따른 지능의 쇠퇴가 거의 없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보다는 인지, 주의력, 동기, 건강 등의 문제 때문에 지능에 차이가 생긴다는 반대 입장도 있다(Harris & Cole, 1985). 윤진(1985)도 마찬가지로 연령 증가에 따른 지능의 감퇴는 심각하지 않으며, 노년초기에 있어 지능의 특별한 퇴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지능은 연령 외에 교육수준, 생활경험, 불안수준, 심리적 스트레스, 직업, 신체건강 등의 요인 때문에 저하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상의 노인의 지적변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쇠퇴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뒷받침하여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연령과 상관없이 여러 요인에 의하여 지능이 쇠퇴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연령증가로 인한 노화현상은 노인의 지적 특징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성격적 특징은 일생을 통하여 비교적 연속선을 가지고 유지된다는 입장과 일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변화해 간다고 보는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맞서 있다. 대체로 성격의 안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성격특징에 초점을 두는 반면, 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자아과정(ego process)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애순, 2002; 한정란, 2005에서 재인용). 또한 노인의 성격적 특징이 개인차나 성별,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만 노화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노인은 지금까지 몇 년 살았는가에서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는가로 시간전망이 변화하게 되며, 신체에 대하여 민감한 심적 반응을 보이며, 조심성이 증가한다. 또한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보다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 내향성이 증가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하여 양성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커지게 된다(변순옥, 1986 ; 윤진, 1985). 또 다른 성격적 특징으로 노년기가 되어 사회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노인들은

소극적,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며, 의존성이 나타나고, 노령에 따른 스트레스, 사별, 경제사정 악화, 고독,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한정란, 2005). 차용은(1980)은 노인의 감정이 주관적이어서 노인은 공포, 실망 등을 자주 나타내며,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우며 독선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창의성과 융통성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노인의 성격적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소극적, 의존성, 독선, 고독, 우울증, 고집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많지만, 이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 아닌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서로 다양한 특징을 보이게 되므로 노인의 성격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인의 사회적 특징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와 사회활동에서의 은퇴 및 역할 상실, 수입 감소에서 비롯된다. 은퇴는 노년기의 시작을 의미하며, 직업적 역할 상실과 이에 따른 부수적인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유지자로서의 가장의 역할 또한 상실하게 되어 새로운 사회적인 적응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역할과 능력상실로 노인들의 자존심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최신적, 1975). Harris 와 Cole(1986)은 젊은이들이 노인의 사회적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젊은이들은 대부분의 노인이 외롭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노인은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없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화를 잘 내어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과의 접촉 부재 및 노인의 지위 저하와 노인의 사회적 역할 상실은 노인에 대한 편견 및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소외와 같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다.

3.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관련 선행연구

유아들이 세대간 차이를 인식하고 구분 할 수 있는 시기를 3~5세경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의 유아는 노인을 지팡이를 사용하고, 주름이 많으며, 머리가 하얗다는 등의 신체적인 특성과 행동적인 특성에 의해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Edward & Ramesy, 1986: 정미실, 1996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유아들은 노인을 인색하다, 친절하다, 좋은 사람이다 등 노인의 대인관계나 성격적 특성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다(최혜순, 1986).

이러한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 형성은 인지적 영향과 더불어 사회학습과,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여 의존하게 된다. 특히 유아는 직접적인 경험과 부모, 교사, 친구,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식을 학습하게 되는데(Stein & Friedeich), 특히 TV를 통한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노인의 이미지를 통하여 유아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쉽다(Holtzman & Akiyama, 1985).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 연구는 20세기 초반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인에 관한 고정관념을 입증하는 단순한 연구였으며, 그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최혜영, 2002).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는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에 큰 진전을 보여 다양한 척도와 질문지 등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이선자, 1989).

Seefeldt 외(1977)는 4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된 CATE(Children's Attitude Toward the Elderly)란 도구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노인에 대한 신체 묘사와 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나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Isaacs & Bearison(1986)는 4,5,8세 유아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을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6세와 8세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4세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다. 또한 유아들은 남자 노인에 대한 편견보다 여자 노인에 대한 편견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대통합프로그램에 따른 유아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Stephnie(2000)는 프로그램 실시 후 유아들이 노인에 대하여 묘사하는데 사용된 긍정적인 단어의 수가 증가하였지만 노인과의 접촉빈도가 적은 집단에서는 단어의 수에 변화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노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서양의 연구결과와 같이 초기에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났으나 90년대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명희(1974)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결과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선자(1981)는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1149명을 대상으로 연령단계별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전 연령층에서 비교적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노인에 대하여 아동기가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청년기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부정적인 경향성이 개입되기 시작하여 노인기에는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약화되었다. 이윤숙(1987)은 조부모에 대한 유아의 의식구조를 연구하였으며, 다수의 유아들은 조부모와 동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신미정(1999)의 연구에서도 조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 유아들이 조부모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와의 교류가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한 장영애(2002)는 남아가 여아보다 노인의 성격적 특성에서 더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서영숙(1996)과 정미실(1996)의 연구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현지(2005)는 노인자원봉사자 유무에 따라 어린이집 유아의 노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노인자원봉사자가 있는 어린이집의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자(2007)의 연구에서도 아동·노인간 세대공동체 교육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곽경란(2007)은 유아 56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과의 연계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인식 연구 초기 단계에는 목적과 측정도구의 단순함으로 인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났으나, 다양한 척도와 질문지 개발로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다. 유아들이 노인에 대한 인식 형성에 미치는 관련 변인으로는 성과 연령, 조부모와의 동거 및 경험 여부, 노인의 성별 등이 있으며, 그 결과에 있어서는 각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관련 선행연구

태도란 행위의 대상에 대하여 선택된 가치에 쏠리는 마음의 자세 또는 마음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태도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획득되거나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경험의 소산이라고 설명되어지기도 한다(이영은, 2009). 그러므로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 등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각자 다르게 형성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가능하기도 하다.

노인들은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노화의 삶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및 행복감의 변화, 근로익욕 증진, 자존감 회복, 건

강회복등을 경험 할 수 있다(전재일 외, 2008). 즉, 세대통합프로그램은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에 따라 다양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전재일 외, 2008). 그러므로 세대통합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진한 실정이지만, 몇 가지 관련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임재택 외(1996)는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심신의 건강을 얻고 자아실현에 만족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노인들은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을 희망하였다. 허은주(2003)도 노인 16명을 대상으로 세대간 학습 활동이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에서 세대간 학습 활동을 경험한 노인은 경험하지 않은 노인보다 불안과 우울감이 크게 감소하여 정신적 건강과 정서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수오(2007)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의 태도변화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노인일자리 참여 후 노인들의 생활상의 태도변화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건강상의 생활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측면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자기 발전을 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전재일 외(2008)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후 노인들의 가장 큰 태도변화는 근로의욕 증진이었으며 가족관계 및 행복감의 변화, 자존감의 회복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하였다. 김희순(2007)은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 344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사

회활동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교육형 사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영은 (2009)은 60~84세 노인 403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참여에 따른 생활태도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노인들은 일자리 참여 후 자신감 향상이 향상되었으며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및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다. 또한 노인일자리 중 복지형에서 가장 긍정적인 생활태도변화가 나타났지만, 교육형에서도 긍정적인 생활태도변화가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 연구도구, 연구절차,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 325명과 노인 225명이다.

연구대상 유아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유아교육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으로부터 유아교육기관의 명단을 받았다. 명단을 토대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를 허락해준 준 1개 기관의 유치원과 4개 기관의 어린이집의 만 3·4·5세 유아 총 32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대통합프로그램에 6개월 이상 참여하여 노인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고 있는 유아로 제한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들의 일반적 특성

연 령	성 별	남	여	전체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만 3세		54(30.5)	53(35.8)	107(32.9)
만 4세		59(33.3)	57(38.5)	116(35.7)
만 5세		64(36.2)	38(25.7)	102(31.4)
전 체		177(54.5)	148(45.5)	325(100)

연구대상 노인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먼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에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 중 교육형으로서 세대통합프로그램의 진행여부를 확인 하였다. 이후 연구를 허락해 준 2개의 서울지역 노인복지회관과 7개의 경기지역 노인복지회관의 노인참여자 22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노인은 1주일 1회 이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며, 6개월 이상의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 경력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였다. 연구대상 노인참여자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노인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성 별	남	86	38.2
	여	139	61.8
	합 계	224	100.0
연 령	61세 이상-70세 미만	90	40.0
	71세 이상-75세 미만	82	36.4
	75세 이상	53	23.6
	합 계	225	100.0

최 중 학 력	초등학교 졸업	30	13.3
	중학교 졸업	45	20.0
	고등학교 졸업	94	41.8
	대학교이상 졸업	56	24.9
	합 계	225	100.0
참 여 동 기	노인복지회관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서	147	65.3
	지역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23	10.2
	종교단체나 지역사회 단체를 통하여	6	2.7
	기존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하여	35	15.6
	기타	14	6.2
	합 계	225	100.0
참 여 기 간	1년	26	11.6
	1년 이상-2년 미만	50	22.2
	2년 이상-3년 미만	81	36.0
	3년 이상-6년 미만	68	30.2
	합 계	225	100.0
참 여 횟 수	주 1회	128	56.9
	주 2회	64	28.4
	주 3회	33	14.7
	주 4회	0	0.0
	주 5회	0	0.0
	합계	225	100.0
담 당 활 동	등·하원 지도	4	1.8
	청소 및 주방 활동	4	1.8
	전통예절 가르치기	21	9.3
	동화 들려주기	91	40.4
	만들기나 그리기	10	4.4
	울동이나 게임	8	3.6
	민속놀이	11	4.9
	영어	7	3.1
	한자	51	22.7
	기타	18	8.0
	합 계	225	100.0

설문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노인복지회관의 세대통합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 세대통합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2명을 면담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면담대상으로 선정된 2명의 사회복지사 추천으로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 5명도 함께 면담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담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면담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 경력	담당 활동
김노인	여	68세	2년	민요
이노인	남	78세	3년	한자교육
박노인	남	73세	3년	영어교육
최노인	여	72세	1년	한국무용
홍노인	여	68세	2년	동화구연
김복지사	여	28세	사회복지사 경력 5년	노인 상담 및 교육
이복지사	여	33세	사회복지사 경력 3년	노인 상담 및 교육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조사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선자(1989)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김광숙(1987)의 ‘노인관 척도’에 의거하여 정미실(1996)이 제작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보완된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유치원 교사 1인과 어린이집 교사 2인, 유아교육전문가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검사 내용은 노인의 이미지, 노인의 신체적 특징, 노인의 지적 특징, 노인의 성격적 특징,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에 대한 인식 검사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2점 척도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렇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0점으로 평정되며, ‘()’로 표시된 부정적인 문항(8, 9, 10, 13, 18)은 역점수로 처리 하였다. 총점은 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본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4와 같이 .69~.7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73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의 내용과 문항의 자세한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검사

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이미지	1, 2, 3, 4, 5, 6, 7	7	.69
신체적 특징	(8), (9), (10), 11, 12	5	.70
지적 특징	(13), 14, 15	3	.73
성격적 특징	16, 17, (18), 19, 20	5	.71
사회적 관계	21, 22, 23, 24	4	.70
총 계		24	.73

2)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선호 조사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박명숙(2002), 서영숙(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 의거하여 한현지(2005)가 제작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보완된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선호’는 유치원 교사 1인과 어린이집 교사 2인, 유아교육전문가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노인참여자에 유아의 대한 선호’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노인참여자에 유아의 대한 선호

영역	구체적인 내용	문항 수
선호도	노인참여자와 함께 놀이하는 것에 대한 느낌	1
	노인참여자에 대한 기다림	1
	노인참여자의 참여 일수	1
	노인참여자와 함께 하는 선호 놀이 및 이유	2
	노인참여자의 선호 행동 및 이유	2
	노인참여자의 비선호 행동 및 이유	2
총 계		9

3) 노인참여자의 태도에 관한 설문지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유아-중고령 여성 협력망 구축 관련 워크숍 자료(교육과학기술부,2007)를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총 35문항으로 예비연구를 거쳐 문항을 수정·보완 한 후, 4인의 유아교육전문가와 2인의 사회복지사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노인참여자의 태도에 관한 설문지 내용은 노인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7문항, 정서·심리적 측면 7문항, 사회적 측면 5문항, 신체적 측면 4문항, 경제적 측면 3문항, 아동관 6문항, 교육적 기대 4문항으로 모두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문항은 총 36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조금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평정되며, 총점은 116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 한다.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6과 같이 .76~.82 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2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의 자세한 구성은 표 6과 같다.

<표 6> 노인참여자의 태도에 관한 설문지

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노인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1, 2, 3, 4, 5, 6, 7	7	
심리 · 정서적 변화	1, 2, 3, 4, 5, 6, 7	7	.81
사회적 변화	8, 9, 10, 11, 12	5	.76
신체적 변화	13, 14, 15, 16	4	.78
경제적 변화	17, 18, 19	3	.82
아동관의 변화	20, 21, 22, 23, 24, 25	6	.79
교육적기대	26, 27, 28, 29	4	.80
총 계		36	.82

3. 연구 절차

1) 예비 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들의 검사 소요시간과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8년 11월 18일 ~ 2008년 11월 25일까지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집 유아 만 3, 4, 5세 각 5명씩 총 15명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및 선호 검사를 1:1 개별 면접으로 실시하였다. 개별 면접 시간은 약 12분이 소요되었으며, 예비연구 결과 3점 척도의 '보통이다' 라는 중간적 의미는 만 3, 4세에게 모호하여 2점 척도로 변경하였다. 척도 및 유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을 수정·보완한 후 유치원 교사 1인과 어린이집 교사 2인, 유아교육전문가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또한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 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응답 시간은 평균 20분정도 소요되었다.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색하거나 모호한 표현,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들을 수정·보완한 후 4인의 유아교육전문가와 2인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연구 보조자 훈련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인식 및 선호 검사를 위한 연구 보조자 훈련은 2009년 2월 2일 하루 동안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3인에게 실시되

었다. 연구보조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각 원의 유아들이 노인참여자를 회상하여 질문에 대답 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3) 본 연구

(1)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인식 및 선호에 대한 자료 수집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인식 및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 1기관과 어린이집 4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선호 면접은 2009년 2월 3일 ~ 2009년 2월 20일까지 이루어 졌으며, 연구자와 3인의 연구보조자가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유아의 1:1 개별 면접으로 실시 되었으며,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오후 종일반 시간에 유아교육기관 체육실의 조용한 영역에서 이루어 졌다. 유아의 개별 면접 소요시간은 약 10분이었다.

(2) 노인 참여자의 태도에 관한 자료 수집

① 설문조사

노인 참여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2개의 서울지역 노인복지회관과 7개의 경기지역 노인복지회관의 노인참여자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 기간은 2008년 12월 1일 ~ 2009년 1월 16일 까지였으며, 배부된 283부의 설문지 중 269부가 회수되어, 95.0%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4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5부의 설문지

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노인복지회관의 월례회의 때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노인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 설문 응답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이 끝난 후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장소는 노인복지회관의 강당이었으며,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우편으로 설문이 이루어 졌다.

② 면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 설문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인참여자 5인과 사회복지사 2인을 대상으로 집단면담을 실시하다. 본 연구자는 집단면담을 하기 전 2회에 걸쳐 노인복지회관의 방문을 통하여 노인참여자, 사회복지사와 레포를 형성을 한 후, 노인참여자 집단과 사회복지사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노인참여자와의 집단면담에서는 설문지의 주요내용과 함께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된 삶의 태도, 부정적으로 변화된 삶의 태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사회복지사들과의 집단면담에서는 제 3의 눈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노인참여자들이 세대통합프로그램참여 후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노인참여자 집단은 2회의 면담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사집단은 1회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각 회당 평균 2시간의 면담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은 상황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강당과 식당 등의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 졌다. 이 때 면담한 내용은 노인참여자와 사회복지사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추후 부족한 자료나 면담 중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서는 전화를 통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인식이 유아의 성별과 노인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셋째,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노인참여자의 태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령, 학력,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노인참여자 및 사회복지사들과의 집단 면담내용을 녹음하여 전사 한 후,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분류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이미지, 신체적인 특징, 지적 특징, 성격적 특징, 사회적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 요인별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N=324$

	M	SD
이미지	.76	.21
신체적 특징	.62	.24
지적 특징	.73	.23
성격적 특징	.74	.15
사회적 관계	.80	.22

표 7에 따르면 유아가 노인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 영역은 사회적 관계($M=.80$)였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M=.76$), 노인의 성격적 특징($M=.74$), 노인의 지적 특징($M=.73$) 순이었다. 반면 유아는 노인의 신체적 특징($M=.62$)을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즉 유아는 노인의 사회활동 능력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대인들과의 관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노인의 외모와 생물학적 노화 현상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체적 특징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의 평균이 0.70을 넘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유아는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인별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유아의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

	유아의 성별		<i>t</i>
	남(<i>N</i> =177)	여(<i>N</i> =148)	
	M(SD)	M(SD)	
이미지	.72(.22)	.81(.18)	-3.61***
신체적 특징	.61(.25)	.63(.22)	-.59
지적 특징	.73(.23)	.73(.22)	-.03
성격적 특징	.72(.16)	.76(.13)	-2.69**
사회적 관계	.79(.23)	.81(.19)	-.86
전 체	.72(.13)	.75(.11)	-2.21*

p*<.05, *p*<.01, ****p*<.001

표 8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남아가 .72점, 여아가 .75점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2.21, p<.05$). 특히 하위 요인 중 노인 에 대한 이미지 ($t=-3.61, p<.001$)와 노인의 성격적 특징 ($t=-2.69,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여아가 남아보다 노인 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에게서 받은 일반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가리키는 이미지와 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품성 및 일반적인 성격적 특징에 대하여 여아가 남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노인 에 대한 인식

유아의 연령에 따른 노인 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유아의 연령에 따른 노인 에 대한 인식

	만 3세 (N=106)	만 4세 (N=116)	만 5세 (N=102)	F	Scheffe
	M(SD)	M(SD)	M(SD)		
이미지	.80(.20)	.78(.20)	.71(.22)	5.43**	a,b>c
신체적 특징	.60(.23)	.62(.24)	.64(.24)	.69	
지적 특징	.76(.23)	.72(.24)	.72(.19)	1.24	
성격적 특징	.78(.15)	.75(.13)	.68(.15)	12.17*	a,b>c
사회적 관계	.80(.23)	.83(.20)	.77(.20)	1.92	
전 체	.75(.12)	.74(.12)	.70(.12)	3.33***	a>c

* $p<.05$, ** $p<.01$, *** $p<.001$

a:만 3세 집단, b: 만 4세 집단, c: 만5세 집단

표 9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만 3세가 평균 .75점이었으며, 만 4세가 평균 .74점, 만 5세가 평균 .70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3.33, p<.001$). 특히 노인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인 중 이미지는 만 3세가 평균 .80점, 만 4세가 평균 .78점, 만 5세가 평균 .71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5.43, p<.01$). 노인의 성격적 특징은 만 3세가 평균 .78점, 만 4세가 평균 .75점, 만 5세가 평균 .6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12.17, p<.05$). 즉, 연령이 낮아질수록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노인에 대한 인식은 만 3세 집단과 만 5세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만 3세 집단이 만 5세 집단보다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이미지와 성격적 특징에서도 모두 만 3세, 만4세, 만5세 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만 3세와 만4세 집단은 만 5세 집단보다 노인에게서 받은 일반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가리키는 이미지와 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품성 및 일반적인 성격적 특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노인의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 차이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이 노인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노인의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

	노인의 성별		t
	남(N=161)	여(N=163)	
	M(SD)	M(SD)	
이미지	.78(.21)	.75(.21)	1.36
신체적 특징	.66(.21)	.58(.25)	2.76**
지적 특징	.73(.21)	.74(.24)	-.45
성격적 특징	.72(.16)	.75(.14)	-1.83
사회적 관계	.80(.20)	.80(.22)	.078
전 체	.74(.12)	.73(.12)	.73

** $p < .01$

표 10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하위 요인 중 노인의 신체적 특징 ($t=2.76$,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유아는 노인의 외모와 생물학적 노화 현상에 대해 노인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보다 남성인 경우에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선호

노인참여자에 대한 전체 유아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 요인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노인참여자에 대한 유아의 선호

N= 324

구 분	내 용	N	(%)
재미	재미있어요.	305	(94.1)
	재미없어요.	19	(5.9)
기다림	기다려져요.	305	(94.1)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19	(5.9)
참여일 횟수	0번	4	(1.2)
	1번	33	(10.2)
	2번	33	(10.2)
	3번	24	(7.4)
	4번	27	(8.3)
	5번(매일)	203	(62.7)
노인참여자와 함께 하고 싶은 놀이	그림 그리기 및 만들기	66	(20.4)
	바깥놀이 (숨바꼭질, 얼음땡, 모래놀이, 산책 등)	54	(16.7)
	소꿉놀이/역할놀이	46	(14.2)
	블록놀이	32	(9.9)
	모든 놀이	30	(9.3)
	동화책읽기	30	(9.3)
	악기연주 및 노래 부르기, 율동	28	(8.6)
	게임	21	(6.5)
	마술	11	(3.4)
	없음	3	(.9)
	무응답	3	(.9)
함께 하고 싶은 놀이의 이유	놀이 자체의 즐거움 및 유아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놀이이기 때문	176	54.3
	노인참여자의 도움으로 놀이가 잘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	59	18.2
	노인참여자와 함께 놀이함으로 인한 즐거움	48	14.8
	무응답	28	8.6
	그냥	13	4.0

노인참여자의 선호 행동	나와 놀아주실 때	96	29.6	
	칭찬해 주실 때	50	15.4	
	선물(사탕, 초콜릿, 연필 등)을 주실 때	46	14.2	
	나를 안아주실 때	42	13.3	
	무언가 가르쳐 주실 때	36	11.1	
	마술을 보여줄 때	11	3.4	
	무응답	11	3.4	
	기타	8	2.5	
	나에게 뽀뽀해 주시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8	2.5	
	내 이야기를 들어 주실 때	6	1.9	
	사랑한다고 말해주실 때	5	1.5	
	웃어 주실 때	4	1.2	
	노인참여자의 비선호 행동	없음	82	25.3
		화내시거나 혼내실 때	73	22.5
일찍 집으로 가실 때, 자주 안 오실 때		53	16.4	
재미없게 놀아주시거나 안 놀아 주실 때		39	12.0	
공부하라고 말씀하실 때		21	6.5	
웃지 않으실 때		17	5.2	
무응답		13	4.0	
기타		11	3.4	
머리가 뽀글뽀글하거나 옷이 예쁘지 않을 때		8	2.5	
재미있는 장난감(교구)을 안 보여 주실 때		7	2.2	

표 11에 따르면 유아의 대부분이 노인참여자와 함께 놀이를 할 때 재미있으며, 노인참여자가 어린이 집에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인참여자의 참여횟수에 대하여 주5회 참여하기를 바라는 응답이 62.7%로 다수의 유아들이 매일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즉, 대부분의 유아가 노인참여자와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결과를 통해 유아의 노인참여자에 대한 선호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시 유아가 노인참여자와 함께 하고 싶은 놀이로는

‘그림 그리기 및 만들기’가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숨바꼭질, 얼음땀,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바깥놀이’가 16.7%로 나타났다. ‘소꿉놀이’는 14.2%, ‘블록놀이’ 9.9%, ‘동화책 읽기’와 ‘모든 놀이’는 9.3%로 나타났다. 유아들이 노인참여자와 함께 하고 싶은 놀이의 이유로는 ‘놀이 자체의 즐거움 및 유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대한 응답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참여자의 도움으로 놀이가 잘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 18.2%, ‘노인참여자와 함께 놀이함으로써 인한 즐거움’ 14.8% 순이었으며, ‘그냥’이라는 응답이 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놀이에 대한 유아의 개인적인 선호가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참여자가 유아에게 무엇을 해 줄때 가장 기분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나와 놀아주실 때’라는 응답이 29.6%로 가장 높았으며, ‘칭찬해 주실 때’ 15.4%, ‘선물(사탕, 초콜릿, 연필 등)을 주실 때’ 14.2%, ‘나는 안아 주실 때’ 13.3%,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때’ 11.1%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노인참여자가 유아에게 무엇을 해 줄때 가장 기분이 좋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화내시거나 혼내실 때 (22.5%)’, ‘일찍 집으로 가실 때, 자주 안 오실 때(16.4%)’, ‘재미없게 놀아주시거나 안 놀아 주실 때(12.0%)’, ‘공부하라고 말씀 하실 때 (6.5%)’, ‘웃지 않으실 때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노인참여자의 태도

① 노인참여자의 정서·심리적 측면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정서·심리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노인참여자의 정서·심리적 측면

$N=225$

정서·심리적 측면	$M(SD)$
생활과 마음에 안정이 찾아옴	3.31(.85)
새로운 역할 수행으로 인생이 보람차고 행복해 짐	3.41(.82)
새로운 어르신 문화와 역할을 창조·주도한다는 의식을 갖게 됨	3.29(.77)
전문가가 된 듯한	3.27(.82)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학습의 욕구가 생김	3.38(.79)
새롭고 어려운 일에도 자신감이 생김	3.35(.80)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에 소속되어있다는 소속감의 기쁨이 생김	3.37(.84)
전 체	3.28(.75)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참여자의 정서·심리적 측면에 대한 전체 평균은 4점 만점 중 3.28점으로,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한 노인참여자들의 정서·심리적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새로운 역할 수행으로 보람차고 행복해 졌다.’는 응답의 평균이 3.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하기위한 학습의 욕구가 생겼다.’는 응

답의 평균이 3.38점,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의 기쁨이 생겼다’는 응답이 3.37로 나타났다. 반면 ‘새로운 어르신 문화와 역할을 창조·주도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정서·심리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참여자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 시간을 보내는 것에 어려움이 많으나, 노인참여자의 경우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나갈 곳이 있다는 것에 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으며,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같이 늙은이들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곤욕이에요. 젊었을 때야 처자식 먹여 살려야하니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죠. 그런데 늙으면 새벽잠도 없어지고 시간도 더디 가는 거 같고..... 그런데 어디 나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큰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복지관 다니면서 어린이집 소개 받아 아이들도 가르치니 너무 좋죠.

— 2008. 11. 27 (목) 박노인

맞아요. 우리 나이 때는 시간 활용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세대통합프로그램은 시간활용도 되고, 내 취미를 살릴 수도 있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유아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도 너무 보람 있고 그러네요.

— 2008. 11. 27 (목) 최노인

노인참여자들은 시간활용을 통하여 얻는 정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세대통합프로그램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노인

참여자들은 질 높은 수업을 위하여 적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에 만족하였으며, 새로 배워나가는 과정을 즐거워하였다. 또한 제 3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도 노인참여자들의 수업 준비는 매우 열정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노인참여자들은 교수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보람을 겪는 동시에,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민요를 가르쳐요. 노래만 하면 아이들 목 아프고 지겨울까봐 20분은 노래하고 10분은 일어나서 율동을 해요. 율동은 아이들 수준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내가 직접 만들어요. 사박자 노래가 있고 삼박자 노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율동 짜다 보면 춤과 박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다 보면 이 동작은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또 연구하고 그래요. 솔직히 율동 하나 가르치려면 일주, 이주동안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보는데, 나도 전문가 못지않게 열심히 수업 연구 하는 거죠. 우리 집 양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한 제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응원도 많이 해줘요.

— 2008. 11. 27 (목) 김노인

저는 복지관에서 마술을 배워요. 왜냐하면 수업 끝날 때쯤에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주거든요. 아이들이 무용도 좋아하지만 마술 보여주면 그렇게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솔직히 처음에는 다 늙어서 이렇게까지 새로 배워 뭐하나 싶었는데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니깐 열심히 배우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로 마술을 배우러 다니는 것도 수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인거죠.

— 2008. 11. 27 (목) 최노인

어르신들이 그냥 수업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수업을 준비하시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하세요. 어떤 선생님 보고서를 보면 ‘내 방은 만들기 세상’이라고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 분은 동화구연을 하기 위한 교구를 만들기 위해 방을 하나 따로 만드셨대요. 어르신들이 교구 만드신 것을 보면 유치원 선생님보다 더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열정이 대단하시죠. 예전에는 집에서 밥이나 빨래, 청소만 하다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하시는 것이 좋으신가요.

— 2008. 12. 11 (목) 이복지사

노인참여자들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활동 외에도 동화구연대회와 같은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대회에서의 수상은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최노인 :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동화구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셨다고 했잖아요. 50명중에 3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그 상장을 가져다가 어린이집 원장님이랑 선생님들에게 자랑하셨대요. 얼마나 자신이 대견스러웠으면....(웃음)

김노인 : 아마 그 선생님은 대회 나가셔서 상도 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해냈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 복지관 나오는 사람들 다 그런 상 같은거 하나씩 받았어요. 1년에 한번 씩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런 대회가 노인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 2008. 12. 2 (목) 최노인, 김노인

반면 노인참여자 중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다니는 노인들에 대하여 과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노인복지회관에 직접 다니면서 오히려 노인참여자들에게 소속감이 생긴다는 큰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속감은 노인참여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과 더불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저는 어디 지나가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것 보면 솔직히 싫었어요. 노인들이 우루루 몰려 다니면서 쓰잘데기 없이 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막상 여기서 보니까 너무 좋은 곳 이에요. 우선 소속감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동화 구연 대회에 나갔는데, 복지관 선생님이 출전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라 하라고 하셨어요. 서류에 소속란이 있는데, 00복지관과 00어린이집 동화 구연 강사라고 적는데 굉장히 부뒸하더라고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워요.

— 2008. 12. 4 (목) 홍노인

그리고 저번 어르신들 면담 때 한 분이 소속감 말씀하셨잖아요. 소속감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자신이 어디에 소속 되셨다는 것에 어르신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명함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사업이 엔젤 사업이다 보니 ‘엔젤 강사 ***’ 이라고 개인적으로 명함을 만드시기도 해요.

— 2008. 12. 11 (목) 이복지사

② 노인참여자의 사회적 측면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사회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노인참여자의 사회적 측면

$N=225$

사회적 측면	$M(SD)$
가족이나 이웃, 친구 등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짐	3.32(.75)
다른 노인들이 일을 하는 나의 모습을 부러워하게 됨	3.39(.79)
새로운 친구들이 생김	3.26(.81)
가족들에게 권위와 존경을 더욱 많이 받게 됨	3.26(.82)
어떠한 일자리보다 유아와 함께 하는 일은 더 보람차며,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식이 생기게 됨	3.50(.74)
전 체	3.30(.69)

표 13에 따르면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참여자들은 사회적 측면에 대한 태도에서 4점 만점 중 평균 3.30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어떠한 일자리 보다 유아와 함께 하는 일은 더 보람차며,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3.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와 ‘가족들에게 권위와 존경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는 응답이 3.2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어떠한 사회적 측면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참여자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노인참여자들은 어린이 집에서의 활동 외에도 동화구연과 같은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노인참여자의 수상경력은 아들에게 보다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체면이 더 서기도 하였으며, 가족들로부터 더욱 많은 존경을 받게 되는 요소가 되었다.

동화구연 대회가 있는데, 거기 나가려면 작품을 하나 정해서 외워야 하거든요. 그 작품을 외우려니까 머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남편에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앞에 가서 연습하지 못해요. 그래서 확장실 들어가서도 외우고, 내 방에 문 닫아 놓고 외우기도 했어요. 우리 집 양반이 조용하던 내가 떠들어 대니까 와서 슬그머니 문 열어 보고 그러더라고요, 변한 내 모습이 신기했나봐. 그리고 내가 상을 타서 메달을 보여주니까 대견스러우신가 보더라고요. 자녀들에게도 “너희 어머니가 금메달 따왔다” 하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들보다는 며느리 앞에서 특히 더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며느리들도 다 대학 나와서 자기 잘났다고 사는 애들인데.....

— 2008. 11. 27 (목) 흥노인

또한 노인참여자들은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후 가족들로부터 권위와 존경을 받게 되는 변화 외에도 물질적, 정신적 지지를 많이 받게 되었다. 자녀들로부터는 축하와 함께 용돈이나 활동에 필요한 동화책을 선물받기도 하며, 손자녀로부터는 수업 방식이나 동화 선택 등의 조언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족들의 지지는 가족 내에서 부모와 조부모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해주고, 노인참여자들의 세대통합프로그램 활동에 더욱 적극적 참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어떤 어르신께서는 며느님이 그렇게 어머니가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어르신이 며느님께 어린이 집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고 하니깐, 어머니 너무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며느리가 이십만원을 통장에 넣어 주셨대요. 그래서 이 돈으로 다니실 때 다니기 불편하시면 택시타고 다니시라고..... 자녀분들 입장에서든 꼭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새롭게 일을하신다는 것 자체에 감격스러워 하신대요.

— 2008. 12. 11 (목) 김복지사

다른 한 선생님이 딸들이랑 아들들이 수업 때 쓰라고 동화책을 사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가 많더라고요. 다른 일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할머니 선생님이시잖아요. 자녀분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선생님이 되니까 더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2008. 12. 11 (목) 이복지사

삼세대가 같이 사는 집은 어르신이 일단 손주에게 물어보고 수업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준비하시는 거죠. 아이들 시각에서 재미있어야 정말 재미있는 수업이 된다면..... 그래서 손주들에게 ‘이거 재미있니?’ 하고 물어보고 손주가 코멘트를 달아주면 수업을 고치시는 거죠.

— 2008. 12. 11 (목) 김복지사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노인참여자 중에는 부부가 함께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게 되어 대화가 많아지게 된 경우가 있었다. 부부는 이를 통해 서로의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다.

교육형 일자리 중에서는 부부끼리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서로 담당 활동에 대해 코멘트도 달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머님 중에 인형극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보통 현장에 나가서 인형극을 하기 전에 노인분들 앞에서 시연을 해봐요. 그러면 아버님이 빠지지 않고 꼭 와서 봐주시고는 좋았던 점이나 고쳐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신대요. 노부부의 그런 보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어머님께서도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아버님과 대화가 많은 편이 아니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니까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 공통의 관심사도 생기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아마 서로 의지가 많이 되실 거 같아요. 부부의 정도 더 깊어지고....

— 2008. 12. 11 (목) 김복지사

노인참여자들은 가족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도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노인참여자들은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교사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이러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노인참여자에게 단순한 호칭 부여가 아닌 큰 의미가 내포된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으로, 노인참여자 또한 자신이 선생님이로서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

또래 노인들 보면 이 나이에 거의 집에서 살림하죠. 저도 뭐 집에서 살림하던 사람이었지만 사회생활이라고 해봐야 가끔 교회 나가는 정도이죠. 하지만 지금은 친구들에게 “나는 복지관에 다니면서 민요, 풍물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라고 이야기 하면, 친구들이 나에게 “너는 언제 그런 걸 배워서 그렇게 가르친다냐. 넌 그러면 선생님인거네. 아이구! 부러워 죽겠다” 하고 이야기해요.

— 2008. 12. 4 (목) 김노인

어르신들은 “선생님”이라는 말 하나에 굉장히 뿌듯해 하세요. 복지회관에서 저희들은 어르신께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지만 다른 직원들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한 할아버님이 “아니 우리 선생님(김복지사)은 우리를 선생님이라 불러주는데, 왜 선생님은 우리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나....” 라고 하셨대요. 그 ‘선생님’이라는 말 하나에 자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어르신들에게는 큰 직함이 되는 거죠.

— 2008. 12. 11 (목) 김복지사

③ 노인참여자의 신체적 측면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신체적 측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노인참여자의 신체적 측면

N=225

신체적 측면	M(SD)
자신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됨	3.52(.75)
머리색도 신경 쓰이고 옷차림도 더 단정하게 됨	3.44(.77)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됨	3.32(.81)
얼굴표정이 밝아 짐	3.36(.78)
진 체	3.38(.73)

표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참여자의 신체적 측면에 대한 전체 평균은 4점 만점 중 3.38점으로, 노인참여자들의 신체적 측면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응답의 평균이 3.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머리색도 신경 쓰이고 옷차림도 더욱 단정하게 되었다.’는 응답의 평균이 3.44로 나타났다. 한편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어떠한 신체적 태도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한 결과 노인참여자들은 어린이집 교사라는 사회활동을 위해 자신들의 건강을 더욱 돌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참여자들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건강해진다고 하였다.

우선적으로 자기 건강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집 밖에 못 나와요. 기본적인 내 건강관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들어 집에만 있으

면 잡생각도 많이 들고 나태해지기 쉽상이죠. 솔직히 어린이집 다니면서 몸이 좀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우선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척 건강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생겼고, 그 일에 자부심도 있고, 자식들 앞에서든 당당해지고, 삶의 의욕도 생기고..... 내 건강이 언제까지 따라줄지 모르겠지만 건강이 허락되는 한 어린이집에 다녀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 2008. 11. 27 (목) 이노인

어르신들께서는 매주 수업을 나가시는 것이 아이들과의 약속이라는 책임감에 스스로 더 건강을 챙기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복지관에서 교박교박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건강을 그렇게 안 챙기시면 제 날짜에 수업을 진행 못하게 되겠죠. 저희들은 어르신들께 힘드시면 쉬시라고 해도 ‘아니야. 예전에는 몰랐는데 자꾸 움직여야 덜 아픈 것 같아.’ 라고 말씀하세요.

— 2008. 12. 11 (목) 이복지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오히려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에게서 ‘젊은 기’ 를 많이 받으신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서 좋은 기운을 받으시니까 그 연세에 그렇게 열심히들 하실 수 있죠.

— 2008. 12. 17 (목) 이복지사

또한 노인참여자들은 건강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관리가 철저해 지는 것과 더불어 외모적으로 유아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여성 노인참여자들은 집에만 있는 주부일 경우 자신을 꾸미게 되는 기회가 별로 없지만,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 자신의 외모를 가꾸게 되었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였다. 여성 노인참여자들은 유아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화장도 하게 되고 머리 드라이에도 신경이 쓰인다고 이야기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결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화려한 색감의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 가는 날에는 목욕도 더 신경 써서 하게 되고, 머리라도 드라이라도 해야 하고,.....오늘은 뭐 입을까 옷도 신경도 쓰이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엉뚱한 소리를 잘해요..... ‘선생님 공주 같아요’, ‘선생님 선녀 같아요’ 하면서 나를 띄워줘요. (하하)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 집에 있으면 어디 화장을 하겠어요, 예쁘게 꾸미기를 하겠어요. 나태해지기 쉬운데 어디 밖에 나가야 하나까 내 자신을 가꾸게 되더라고요.

— 2008. 12. 4 (목) 김노인

요즘 아이들은 내가 옷을 지난 시간과 다르게 입고 가면 그거 다 알아봐요. “오늘은 우리 무용선생님 이거 입었네” 하고 말해주고, 신발은 뭐 신었냐면서 물어보기도 해요. 또 아이들이 내가 착용하고 있는 옷이라든가 귀걸이를 보고 예쁘다면서 선생님에게 적어지면 자기 달라고 해요. “선생님한테 그거 작아지면 나 주세요” 라고 누가 말하면 애들 모두 ‘나 주세요’, ‘나 주세요’ 하는데.... 그럴 때 얼마나 우스운지..... 아이들이 이렇게 걸모습에 예민하니까 그 수준에 맞게 화려한 색깔의 옷이나 귀걸이, 반지를 이용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꾸미게 되는 거 같아요.

— 2008. 12. 4 (목) 최노인

④ 노인참여자의 경제적 측면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경제적 측면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노인참여자의 경제적 측면

N=225

경제적 측면	M(SD)
활동비의 액수에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얻게 됨	3.26(.79)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활동비 액수에 만족함	2.44(.96)
스스로 나의 용돈을 마련한 것에 대하여 자식 앞에 당당해 질 수 있게 됨	3.09(.89)
전 체	2.91(.74)

표 15에 따르면 경제적 측면은 4점 만점 중 평균 2,91점으로, 노인참여자의 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활동비의 액수에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얻게 되었다.’는 응답이 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활동비 액수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4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노인참여자들은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받고 있는 활동비의 액수에 대하여 크게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어떠한 경제적 태도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참여자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노인참여자들은 어린이집에서 유아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한 달에 총 2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비는 젊은 사람에게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노인참여자는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로 인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20만원 때문에 자식들에게 용돈으로 인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또한 손자녀와 어린이집의 유아들에게 경제

적으로 능력 있는 조부모의 역할을 보여 줄 있는 것에 대해 노인참여자들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노인참여자들은 면담에서 활동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활동비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활동비가 없는 것보다는 적게나마 있는 것이 노인참여자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활동비는 어르신들 스스로 일을 하여 돈을 벌었다는 자신감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 앞에서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받는 활동비가 크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다소 도움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용돈이라도 누구에게 달라고 해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용돈 좀 달라는 말 자식에게 하기 쉽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내가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죠.

— 2008. 12. 4 (목) 박노인

글이나 캔디 같은 거를 가져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래도 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늙은이 생각해서 “동화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는데..... 안 받기도 뭐하고 그래서 몇 번 받았었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번번히 받기만 하기에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 지우개를 사다 줬어요. 원장선생님에게는 제가 아이들에게 받은게 많아서 보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원에 아이들이 80명 정도인데, 그 80명 지우개 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돈이 아깝다기 보다는 내가 이 나이에 돈 벌어서 아이들에게 작은 거라도 사다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죠. 솔직히 돈이 능력이라고 하듯이, 제게도 능력이 생긴거 같아요.

— 2008. 12. 4 (목) 홍노인

우리가 생각하는 2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20만원은 굉장히 커요.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돈마저 없으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동안에는 매달 20만원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자신감도 생기시고, 손자나 자식들 앞에서도 떳떳하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요즘은 내가 손자 과자라도 사 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솔직히 그 연세에 어디가서 이런 돈을 버시겠어요.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젊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른 일자리보다 이 프로그램의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 2008. 12. 11 (목) 이복지사

노인참여자들은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로 생긴 소득에 대해 정신적, 심적으로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그 액수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였다. 노인참여자들은 활동준비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활동비의 액수를 높여주거나 활동 시간을 늘려주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현재 받고 있는 활동비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문조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김에 활동 시간이 조금 더 많아서 조금이라도 더 벌었으면 해요. 어차피 수업 하나 하려면 연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연구 시간에 비하여 활동 시간이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 2008. 12. 4 (목) 박노인

나도 박노인과 같은 생각이예요. 어차피 수업 하나 준비하려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활동들을 한 번만 써먹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수업 준비과정에 비해서 돈이 적은 건 사실인거 같아요. 우리 노인네들 욕심에는 일주일에 2번 어린이집에 나가는 것을 3번이나 4번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돈을 조금 더 올려주던가..... 그냥 그런 바람이 있어요.

— 2008. 12. 4 (목) 김노인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1년에 7개월 동안 일자리가 진행이 되요. 그나마 저희는 시에서 지원이 있어 2개월 추가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9개월 동안 일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께는 불만사항이 되더라고요. 일단 1년은 12개월인데 왜 7, 9개월밖에 일을 안 주냐는 거죠. 어르신들은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쉬는 동안에는 수입과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더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오히려 방학이 싫다고도 말씀하세요.

-2008. 12. 11 (목) 김복지사

⑤ 노인참여자의 아동관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아동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노인참여자의 아동관

$N=225$

아동관 변화	$M(SD)$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 이후 손주들의 양육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음	2.75(.97)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됨	3.50(.75)
유아는 모든 일을 도와주어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됨	2.53(1.05)
유아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능력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됨	3.34(.83)
유아마다 가지고 있는 품성, 재능은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됨	3.42(.75)
유아기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갖게 됨	3.61(.71)
전 체	3.12(.68)

표 1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참여자의 아동관에 대한 전체 평균은 4점 만점 중 3.12점으로, 아동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기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의 평균이 3.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는 응답의 평균이 3.50로 나타났다. 한편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 이후 손주들의 양육을 담당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2.75점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유아는 모든 일을 도와주어야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평균 2.5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아동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노인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노인참여자들은 어린이집에서 유아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매우 즐겁게 느끼고 있었으며, 유아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은 노인참여자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고 있었다. 하지만 남성노인참여자 중에는 유아들의 재롱이나 활동으로 인한 즐거움 보다는 학과목을 가르치는 것에서 오는 보람이 더 크다고 하였다.

전에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혼자 삭히고 말았는데 이제는 아이들하고 놀다보면 그 안 좋은 마음이 싹 내려가요.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 2008. 11. 27 (목) 김노인

전어야 뭐 혼자 웃을 일이 있나요. 자식도 다 키워서 내 보냈겠다.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그런데 가끔씩은 집에서 잠들기 전에 누워 있다 보면, 낮에 아

이들하고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서 나 혼자 빙긋이 웃곤 해요. 이제는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된 것 같아요.

— 2008. 11. 27 (목) 최노인

어떤 아이들은 나에게 종이와 연필을 들고 와서는 싸인을 해 달라고도 해요. 내가 요즘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 많다니까요. 아마 이렇게 애들 보는 맛에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과 이렇게 재미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을 거예요.

— 2008. 12. 4 (목) 홍노인

한번은 수업 끝나고 아이 한명을 안아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아이도 와서 안아달라고 하고, 한명 안아주면 또 한명 와서 안아달라고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애들이 달려들어 한꺼번에 안기는 바람에 뒤로 나자 빠졌다니까요(하하. 웃음). 이렇게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 주니, 저도 아이들이 예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정 붙이면 정 떼기도 어렵고.....

— 2008. 12. 4 (목) 홍노인

여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안겨서 뒤로 넘어졌다고도 하고..... 싸인도 해달라고 한다는데..... 그건 아무래도 아이들이 할머니를 더 가깝게 생각해서 그런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선생들도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여선생님들처럼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예뻐하죠. 솔직히 우리 남자들도 아이들 재롱에 즐거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던가 영어나 한자 같은 학과목을 가르친다는 기쁨이 더 큰 거 같아요. 보람도 있고.....

— 2008. 12. 4 (목) 박노인

⑥ 노인참여자의 교육적 기대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교육적 기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노인참여자의 교육적 기대

$N=225$

교육적 기대	$M(SD)$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노인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임	3.29(.73)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3.40(.74)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전통문화와 예의범절을 익히게 될 것임	3.34(.76)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노인과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임	3.37(.74)
전 체	3.33(.67)

표 17에 따르면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대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 중 평균 3.33점으로 높은 기대치를 나타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는 응답이 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노인과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37로 나타났다. 반면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노인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대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노인참여자들은 요즘 유아들에 대하여 예전만큼 예의가 없고, 기본생활습관이 바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부모들의 인성교육의 부족과 대부분의 자녀가 1명이어 귀하게만 키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노인참여자들은 자신이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자신의 수업시간만큼은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노력 한다고 하였다.

요즘 혼자 크는 애들이 워낙 많아 다들 귀하게 자라기 때문에 예의가 예전만큼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아이들에게 예의바른 생활을 하게끔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특히 기본적인 인사에 신경을 쓰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이나 끝날 때는 공수자세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바르게 인사하게 해요. 일주일에 한번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습관이 쌓이다 보면 인성교육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이들이 처음보다는 많이 점잖아지고, 바르게 서서 인사 잘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 2008. 11. 27 (목) 박노인

요즘 애들은 너무 천방지축이에요.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에 대한 기본 교육이 부족해요. 특히 인성교육에 있어서요. 그래도 내가 한자 담당이니까.....한자는 다른 과목과 달리 좀 더 예절에 대해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간 시간만큼은 애들이 조금 경직되고 딱딱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나로 인하여 인성적으로 바르게 자랐으면 해요.

— 2008. 12. 4 (목) 이노인

내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반에 들어갔더니 4분의 1이 왼손잡이더라고요. 그런데 데 나는 왼손잡이는 세상 살면서 불편한 일이 많고 불이익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한자 시간 만큼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1년이 다되어가니까 5명중에 3명은 오른손잡이로 고쳐지더라고요. 그 아이 어머니들이 나에게 어찌

나 고마워하던지..... 내가 마음이 너무 흐뭇해서 아이들에게 노트랑 연필도 사
다줬어요.

-2008. 12. 4 (목) 이노인

노인참여자들은 유아들에 대한 견해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세대통합프로
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의 담임들에 대한 태도도 지적하였다. 노인참여자들은 각
반 유아들의 수업태도나 반의 분위기가 담임들의 역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
하였다. 세대통합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통제해 주었을
경우 수업진행이 수월해지며, 반의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세대통합프로그램 수업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였지만, 실제로는 교사에게 부탁을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담임교사들의 세대통합프로그램 및 노인참여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의 각 반에 들어가 보면 반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내가
가는 곳만 해도 어린반 아이들이 자세도 바르고 분위기도 좋아요. 오히려 큰
아이들 반이 더 장난도 잘치고 여수선해요. 그게 담임선생님들의 역량에 좌지
우지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린아이들 반 선생님들은 내가 수업할 때
아이들 자세도 잡아주고 하면서 도와줘요. 그런데 큰아이들 반 선생님한테 내
수업시간만큼은 자기들 쉬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 사십분 되는 시간동
안만이라도 애들에게서 떠나 자기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거겠죠.

-2008. 12. 4 (목) 박노인

제가 나가는 어린이집이 두 곳인데, 거기도 비교가 되요. 한 곳은 담임이 같
이 있으면서 아기들이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있으면 잡아주기도 하고, 장난치는
아기들 있으면 자세를 시켜주기도 해요. 그리고 책상에서 한자 쓸 때 담임이 저
와 함께 아이들 쓰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다른 한 곳은 제가

수업할 동안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요. 뭐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인지, 뭐 재미난 것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곳은 아예 답임이 교실에서 나가버린대요. 그런데 솔직히 답임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직접 도와달라고는 미안해서 말 못해요. 확실히 답임이 좀 도와주면 우리가 애들에게 가르치기가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빼먹지 않고 다 가르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008. 12. 4 (목) 이노인

1) 노인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태도

노인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노인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태도

	노인참여자의 성별		<i>t</i>
	남(<i>N</i> =86) <i>M</i> (<i>SD</i>)	여(<i>N</i> =139) <i>M</i> (<i>SD</i>)	
정서·심리적 측면	3.16(.77)	3.35(.73)	-1.81
사회적 측면	3.14(.74)	3.40(.65)	-2.73**
신체적 측면	3.25(.82)	3.46(.65)	-2.11*
경제적 측면	2.81(.78)	2.98(.71)	-1.64
아동관	3.04(.73)	3.16(.64)	-1.31
교육적 기대	3.17(.81)	3.42(.54)	-2.74**
전 체	3.09(.70)	3.28(.58)	-2.21*

p*<.05, *p*<.01

표 18에 따르면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남성이 3.09점, 여성이 3.28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21, p<.05$). 즉, 여성노인참여자가 남성노인참여자에 비하여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위 요인 중 사회적 측면($t=-2.73, p<.01$)과 신체적 측면($t=-2.11, p<.05$), 교육적 기대($t=-2.74, p<.01$)에서 여성노인참여자의 평균이 남성노인참여자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참여자는 남성노인참여자보다 새로운 역할수행으로 인한 근로의식 및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외모와 건강에 대한 신체적 태도 및 세대통합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대에 대하여 남성노인참여자보다 여성노인참여자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2) 노인참여자의 연령에 따른 태도

노인참여자의 연령에 따라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노인참여자의 연령에 따른 태도

	61-70세 (N=90)	71-75세 (N=82)	76세 이상 (N=53)	F
	M(SD)	M(SD)	M(SD)	
정서·심리적 측면	3.38(.70)	3.27(.72)	3.12(.85)	1.908
사회적 측면	3.36(.63)	3.30(.72)	3.20(.77)	.807
신체적 측면	3.42(.62)	3.40(.75)	3.26(.85)	.893
경제적 측면	2.87(.74)	2.97(.70)	2.91(.82)	.356
아동관	3.13(.67)	3.13(.66)	3.06(.72)	.243
교육적 기대	3.38(.54)	3.37(.69)	3.19(.81)	1.535
전 체	3.24(.58)	3.23(.64)	3.13(.73)	.533

표 19에 따르면 정서·심리적 측면의 경우 61-70세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3.38점으로 나타났으며, 71-75세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3.27점, 76세 이상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3.12점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이 감소하였다. 사회적 측면의 경우에도 61-70세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3.36점, 71-75세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3.30점, 76세 이상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3.20점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신체적 측면의 경우 또한 61-70세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3.42점, 71-75세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3.40점, 76세 이상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3.26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제적 측면을 제외한 정서·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신체적 측면, 아동관, 교육적 기대에서 노인참여자의 연령이 감소함에 따라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즉, 노인참여자의 연령이 감소함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노인참여자의 학력에 따른 태도

노인참여자의 학력에 따라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노인참여자의 학력에 따른 태도

	초등학교 졸업 (N=30)	중학교 졸업 (N=45)	고등학교 졸업 (N=94)	대학교 이상 졸업 (N=56)	F	Scheffe
	M(SD)	M(SD)	M(SD)	M(SD)		
정서·심리적 측면	2.74(1.03)	3.16(.91)	3.44(.60)	3.33(.61)	6.46***	a<c,d
사회적 측면	2.89(.98)	3.22(.88)	3.44(.57)	3.31(.51)	4.37**	a<c
신체적 측면	3.06(1.02)	3.23(.84)	3.50(.64)	3.41(.59)	3.19*	a<c
경제적 측면	2.88(.99)	2.93(.78)	2.93(.73)	2.89(.66)	.055	
아동관	2.73(.88)	3.00(.83)	3.23(.59)	3.18(.55)	4.24**	a<c,d
교육적 기대	2.84(.99)	3.20(.73)	3.46(.52)	3.48(.48)	7.84***	a<c,d
전 체	2.83(.92)	3.08(.82)	3.34(.50)	3.25(.48)	4.90**	a<c

*p<.05, **p<.01, ***p<.001

a:초등학교 졸업 집단, b: 중학교 졸업 집단, c: 고등학교 졸업 집단,

d:대학교 이상 졸업 집단

표 20에 따르면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초등학교 졸업 집단이 평균 2.83점, 중학교 졸업 집단 평균 3.08점, 고등학교 졸업 집단 평균 3.34점, 대학교 이상 졸업 집단 평균이 3.25점으로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F=6.46, p<.001$). 즉,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노인참여자 태도가 가장 긍

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정서·심리적 측면은 초등학교 졸업 집단이 평균 2.74점, 중학교 졸업 집단 평균 3.16점, 고등학교 졸업 집단 평균 3.44점, 대학교 이상 졸업 집단이 평균 3.33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4.37, p<.01$). 신체적 측면에서도 초등학교 졸업 집단이 평균 3.06점, 중학교 졸업 집단 평균 3.23점, 고등학교 졸업 집단 평균 3.50점, 대학교 이상 졸업 집단이 3.41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3.19, p<.05$). 아동관은 초등학교 졸업 집단이 평균 2.73점, 중학교 졸업 집단 평균 3.00점, 고등학교 졸업 집단 평균 3.23점, 대학교 이상 졸업 집단이 3.18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4.24, p<.01$). 교육적 기대는 초등학교 졸업 집단이 평균 2.84점, 중학교 졸업 집단 평균 3.20점, 고등학교 졸업 집단 평균 3.46점, 대학교 이상 졸업 집단이 3.48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7.84, p<.01$).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노인참여자의 사회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은 초등학교 졸업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초등학교 집단보다 사회적 측면, 신체적 측면의 점수가 높았으며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심리적 측면, 아동관의 측면, 교육적 기대는 초등학교 졸업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집단, 대학교 이상 졸업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 대학교 이상 졸업집단이 초등학교 졸업 집단보다 정서·심리적 측면, 아동관의 측면, 교육적 기대의 점수가 높았으며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노인참여자의 참여기간에 따른 태도

노인참여자의 참여기간에 따라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노인참여자의 참여기간에 따른 태도

	1년 미만 (N=26)	1년 이상 -2년 미만 (N=50)	2년 이상 -3년 미만 (N=81)	3년 이상 -6년 미만 (N=68)	F	Scheffe
	M(SD)	M(SD)	M(SD)	M(SD)		
정서·심리적 측면	2.97(.79)	3.33(.68)	3.25(.82)	3.40(.67)	2.17	
사회적 측면	2.99(.79)	3.38(.69)	3.23(.72)	3.45(.59)	3.24*	a<d
신체적 측면	3.08(.86)	3.44(.72)	3.27(.75)	3.57(.59)	3.75*	a<d
경제적 측면	2.61(.75)	3.04(.79)	2.81(.73)	3.07(.68)	3.51*	a<d
아동관	2.86(.73)	3.16(.64)	3.07(.73)	3.23(.61)	2.03	
교육적 기대	3.05(.81)	3.28(.82)	3.37(.57)	3.43(.57)	2.14	
전 체	2.94(.74)	3.25(.65)	3.14(.68)	3.36(.49)	3.14*	a<d

*p<.05

a:1년 미만 집단, b:1년 이상-2년 미만 집단, c:2년 이상-3년 미만 집단,
d:3년 이상-6년 미만 집단

표 21에 따르면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참여기간이 1년 미만 집단의 평균 2.94점, 1년 이상-2년 미만 집단 평균 3.25점, 2년 이상-3년 미만 집단 평균 3.14점, 3년 이상-6년 미만 집단 평균이 3.36점으로 3년 이상-6년 미만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3.14$, $p<.05$). 즉,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이 3년 이상

-6년 미만의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사회적 측면은 1년 미만 집단이 평균 2.99점, 1년 이상-2년 미만 집단 평균 3.38점, 2년 이상-3년 미만 집단 평균 3.23점, 3년 이상-6년 미만 집단 평균이 3.45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3.24, p<.05$). 신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1년 미만 집단의 각 평균이 3.08점과 2.61점, 1년 이상-2년 미만 집단의 각 평균이 3.44점과 3.04점, 2년 이상-3년 미만 집단의 각 평균이 3.27점과 2.81점, 3년 이상-6년 미만 집단의 각 평균이 3.57점과 3.07점으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3.75, p<.05, F=3.51, p<.05$).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노인참여자의 사회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 경제적 측면 모두 1년 미만 집단과 3년 이상-6년 미만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3년 이상-6년 미만 집단의 점수가 1년 미만 집단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사회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선호를 알아보고 노인참여자들의 태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세대통합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노인참여자에 대한 인식

본 연구 결과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는 노인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인 중 사회적 관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즉 유아는 노인의 사회활동 능력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대인 관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노인의 외모와 생물학적 노화 현상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들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 사회적 특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노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이선자, 1989; 정미실;1996; 최혜영, 2002; 한현지, 2005)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며 어린이집의 교사들과 협조적으로 지내는 노인참여자들의 모습이 유아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졌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아는 외적인 면에

의하여 사람을 판단(Edward & patricia, 1986; Salkind, 1991)하기 때문에 노인참여자들의 흰머리카락과 주름 등의 외적인 모습이 신체적 특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노인의 외적 측면에 대하여 일반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아 신체적 특징에서 가장 낮은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성별에 따라 여아가 남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하위 요인 중 노인의 이미지와 성격적 특징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노인에게서 받은 일반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가리키는 이미지와 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품성 및 일반적인 성격적 특징에 대하여 여아가 남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혜영(2001)의 만 5세의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노인에 대하여 공경의식이 높고 정서적 유대감이 깊다(박갑선, 1995)는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하위 요인 중 노인의 이미지와 성격적 측면에 대해 만 3, 4세 유아들이 만 5세 유아들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였다. 즉, 노인에게서 받은 일반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가리키는 이미지와 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품성 및 일반적인 성격적 특징에 대하여 만 3,4세 유아가 남아만 5세 유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들어 갈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약화되어 간다는 연구 결과(이선자, 1989)와 일치한다. 또한 서정기(1993)의 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도 학년이 낮을수록 조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유아들과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한 노인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노인

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하위 요인 중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아는 여성노인참여자 보다 남성노인참여자 와 함께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경우 노인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다. 박경란 외(2003)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들은 교사나 노인들로부터 한 자리에 앉아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정적인 교육 활동을 받는 것보다 떡 만들거나 연날리기 등 적극적이며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활동을 더 선호한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의 경우 더욱 활발하게 유아들과 적극적인 신체놀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에서 결과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세대통합프로그램으로 동화 들려주기, 영어, 한문과 같은 정적인 교육보다 산책, 숲 체험 활동, 민속놀이 등 유아들이 선호하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남성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격려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 유아의 노인참여자에 대한 선호

본 연구 결과 유아들은 노인참여자에 대해 높은 선호(94.1%)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참여자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보인다는 임재택(2001)과 한현지(2005)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유아들은 노인참여자 와 함께 놀이하는 것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앞선 본 연구 결과에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아는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세대간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들이 노인참여자 와 함께 하고 싶은 놀이로는 그림 그리기나 만

듣기, 바깥놀이(숨박꼭질, 얼음땡, 모래놀이, 산책 등), 소꿉놀이, 블록놀이, 동화책 읽기, 악기연주 및 율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유아들은 일방적인 교수를 받는 수동적인 활동 보다 노인참여자와 함께 상호작용적인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박경란 외(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세대통합프로그램은 동화 들려주기, 영어, 한자와 같은 일방적인 교수를 받는 수동적인 활동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만들기, 그림그리기, 민속놀이와 같은 유아들이 선호하는 활동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결과와 상반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대통합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 유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노인과 유아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유아들은 노인참여자들이 놀아줄 때와 칭찬해 줄 때, 선물(사탕, 초콜릿, 연필 등)을 줄 때, 안아줄 때,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등의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노인참여자들이 화내거나 혼낼 때, 짝 집으로 갈 때, 자주 안 올 때, 재미없게 놀아주거나 안 놀아 줄 때, 공부하라고 말씀하실 때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유아들은 언어적 보상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리적보상의 경우 보상의 정도가 점점 강해져야 함을 미루어 보았을 때 노인참여자들은 언어적인 보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참여자를 대상으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위한 사전교육 시 수업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유아들의 전반적인 발달 및 상호작용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노인참여자의 태도

본 연구 결과 노인참여자들은 새로운 사회적 위치와 역할수행으로 인한 정서·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새로운 역할 수행으로 인하여 인생이 보람차고 행복해졌으며,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학습의 욕구가 생기게 되었다. 노인참여자와의 면담결과에서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수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통하여 노후 시간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속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삶의 활력과 보람을 얻어 만족도가 증가하였다는 권중돈(2005), 이승자(2007), 허우정 외(2006), 허은주(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대통합프로그램이 사회적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게 정신적인 건강과 인생의 보람을 갖는데 도움을 주며(심재선, 2005) 노후의 역할상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참여자들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직업의식 및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노인참여자들은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생각과 직업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가족, 이웃, 친구 등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게 되었다. 면담결과에서도 노인참여자들은 가족들로부터 물질적·정신적 지지를 받는 것과 더불어 자식들로부터 더욱 존경을 받게 되었다. 부부가 함께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서로의 이해가 더욱 깊어져서 사이가 돈독해 지게 되었다. 이는 노인일자리 참여로 노인들의 가족 관계 향상 및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우채영(2004), 이영은(2009), 전재일, 김효정(2008)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육도우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직업 활동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다는 김태현(2005)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핵가족 시대에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세대통합프로그램과 같은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대통합프로그램과 같은 노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및 홍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참여자들은 외모에 대한 태도 및 건강관리에 대한 신체적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 노인참여자들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외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는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증진될 것이라는 박선해(2001)의 세대통합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예비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면담을 통하여 노인참여자들이 교수자로서 새로운 역할 수행과, 유아들의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 노인참여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참여자들은 유아들이 노인을 인식할 때 외모를 포함한 신체적 특징을 많이 사용한다(박경란 외, 2004)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와 같은 건강한 노인참여자들의 모습은 유아들에게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뿐 아니라, 노인의 삶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즉 두 세대간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세대통합프로그램의 확대 및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참여자들은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로 생긴 소득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태도를 나타냈다. 노인참여자들은 경제활동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에는 만족하지만, 현재 받고 있는 활동비 액수에는 불만을 나타냈다. 면담을 통하여 노인참여자들은

스스로 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에는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업준비를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활동비의 액수가 적으며 활동기간이 짧다고 대답한 것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태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이 보육시설에서 활동을 할 때 일의 의미를 사회 참여에 둔다고 할지라도 무급 자원봉사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장영희(2007)의 연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서영숙(1996a; 1996b)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자원봉사로 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지가 낮으며 보육활동 참여 대가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 참여 동기로 '돈이 필요해서' 라는 경제적 이유가 많다는 이영은(2009)의 연구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세대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인 뒷받침과 함께 현재 1년 중 7개월의 활동 기간에 대한 기간 연장 방안이 모색 될 필요가 있다.

노인참여자들은 아동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유아기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의 모습은 노인참여자들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세대통합프로그램은 유아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노인참여자 또한 유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즉, 세대통합프로그램은 진정한 의미의 세대간 이해와 상호교류의 장이 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노인참여자들은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노화현상, 예의범절, 전통문화전수 등의 유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다. 노인참여자들은 유아들이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유년기를 대상으로 세대통합프로그램

을 실시하였을 경우 노인에 대한 호의적이 태도를 가지게 되고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는 Kassab(1999)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참여자들은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전통문화와 예의범절을 익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황정숙(2001)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는 노인에 비하여 전통문화 전수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선희(2001)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아들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예의규범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 전수 및 예절교육에 있어 노인참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아들에게 전통문화 활동 및 예의범절 전수를 위한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면담내용은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이 세대통합프로그램시간을 방관한다는 것이다. 노인참여자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교사들은 자신의 업무를 보거나 교실을 비우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노인참여자들은 학급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교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노인참여자와 교사 간의 이해부족으로 오해들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기 위하여 교사 및 노인참여자들의 서로 이해를 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은 노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들은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 특징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사회활동 능력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대인 관계가 유아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성별에 따라 여아가 남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하위 요인 중 노인의 이미지와 성격적 특징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의 연령에 따라 노인의 이미지와 성격적 측면에서 만 3, 4세 연령의 유아들이 만 5세 연령의 유아들보다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였다. 유아들과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한 노인참여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차이를 나타냈다. 유아는 여성노인참여자 보다 남성노인참여자와 함께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경우 노인의 신체적 측면 대하여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다.

셋째, 94.1%의 유아들이 노인참여자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보였으며,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 바깥놀이(숨박꼭질, 얼음땡, 모래놀이, 산책 등), 소꿉놀이, 블록놀이, 동화책 읽기, 악기연주 및 노래 부르기 및 율동 등의 노인참여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활동을 선호하였다. 유아들은 노인참여자들이 놀아줄 때와 칭찬해 줄 때, 선물(사탕, 초콜릿, 연필 등)을 줄 때, 안아 줄 때,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등의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노인참여자들이 화를 내거나 혼낼 때, 일찍 집으로 돌아 갈 때, 자주 안 올 때, 재미없게 놀아주거나 안 놀아 줄 때, 공부하라고 이야기 할 때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넷째, 노인참여자는 정서·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신체적 측면, 경제적 측면, 아동관, 교육적 기대에서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태도를 나타냈다.

다섯째,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하위 요인 중 사회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 교육적 기대에서 여성 노인참여자가 남성 노인참여자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참여자의 태도는 노인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참여자의 태도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하위 요인 중 사회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에서 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초등학교 졸업 집단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정서·심리적 측면, 아동관, 교육적 기대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이상 졸업집단이 초등학교 졸업 집단보다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인참여자의 참여기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 요인 중 노인참여자의 사회적 측면, 신체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3년 이상-6년 미만 집단이 1년 미만 집단보다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특기적성 수업이 이루어지는 세대통합프로그램으로 노인연구 대상이 특기강사로만 선정되었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특기강사 뿐만 아니라 보육도우미로 활동하는 노인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만족도 및 아동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세대통합프로그램과 같은 교육형 노인일자리와 시장형, 복지형 등의 노인일자리 종류에 따른 대한 삶의 태도 및 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법과 3회라는 짧은 면담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층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맥락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문화기술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1,3세대인 유아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세대통합프로그램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교사들의 세대통합프로그램과 노인참여자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곽경란 (2007). 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 연계활동이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오정 (2004). 노인과 유아 간 연계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중돈 (2005). 노인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의 세대통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15-33.
- 기영화 (2007). **노인교육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광숙 (1987). 청소년의 노인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 (2007).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애순 (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종관 (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노인-아동 통합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현 (2005). 여성시니어 아동보육도우미 교육프로그램. 2005 한국가족생활교육사협회 워크숍 자료.
- 김희순 (200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항진 (2003). 노인교육기관의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13(봄호). 145~171.
- 네이버 (2009).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에서 2009년 6월 16일 인출.

- 박갑선(1995). 초등학교 고학년의 노인 공경 의식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지역사회개발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란, 전예화, 김희년, 오찬옥 (2004). 아동과 노인 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세대통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13(1), 17-27.
- 박명숙 (2002). 민간보육시설에서의 노인자원봉사자 활용의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혜 (2001). 보육시설에서의 노인·아동 상호작용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예비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 26, 161-184.
- 변순옥 (1986). 노년기 교육의 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수오 (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영숙 (1996a). 노인의 보육기관 참여에 관한 부모의 교사와 교사의 인식. **아동연구**, 11(1), 19-38.
- 서영숙 (1996b). 노인의 보육기관 참여에 관한 인식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1(1), 45-74.
- 서정기 (1992). 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재선 (2005). 노인, 아동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유아교육기관 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윤희 (2003). 노인강사 활성화 방안 연구 : 아동보육시설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채영 (2004). 노인들의 학습 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영주지역 노인교육 참여자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 (1989).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가옥, 이지영, 미이진, 김연순 (2008).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자기성찰-휴대전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9(봄호), 79-110.
- 이선자 (1989). 연령단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자 (2007). 아동·노인간 세대공동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표 (2005). 노인 인력의 유아교육기관 활용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남 (2001). 고령화 사회의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 광역시를 중심으로 .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은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에 따른 생활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숙 (1987).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세논총**, 8, 358-370.
- 이은주 (2004).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특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인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재택 (2001). 유아교육기관의 노인·아동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5), 67-101.
- 임재택, 김윤옥, 김경호 (1996). 보육시설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연구. **영유아보육연구**, 1(1), 1-34.
- 장영애 (2002).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도시와 농촌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30, 91-115.

- 장영희 (2007). 노년 세대와의 연계를 통한 육아지원. 「유아-중고령 여성 협력망구축」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 워크숍, 교육인적자원부.
- 장정숙 (2002). 노인인력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재일, 김효정 (2008). 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생활 변화. **사회복지개발연구**, 14(1), 35-62.
- 정미실 (1996). 아동, 부모, 조부모 특성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숙 (1990).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명희 (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태도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용은 (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학논문집**, 9, 239-262.
- 최순남 (1984).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홍익제.
- 최혜순 (1986).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지도. 서울: 백록출판사.
- 최혜영 (2001). 만 5세 유아의 노이에 대한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정란 (2001). **교육노년학**. 서울:학지사.
- 한정란 (2005).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학지사.
- 한현지 (2005). 노인자원봉사자 유무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 부모, 교사의 노인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정숙 (2001). 할머니의 유아교육의 참여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우정, 하은옥, 김은주, 조민영, 임부연, 황혜익 (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노인-아동 세대통합프로그램의 의미와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0(4), 331-350.
- 허은주 (2003). 어린이집에서의 세대 간 학습활동의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romley, D. B. (1966). *The psychology of human aging*. Maryland Baltimore, Pengin Books.
- Charlotte, C. (2009). Children's attitudes and classroom interaction in an intergenerational education program. *Children Educational Gerontology*, 35(5), 453-464.
- Conner, K. E., & Bultena, G. (1979). Social interaction and life satisfaction : An empirical assessment of later life patterns. *Journal of Gerontology*, 34, 116-121.
- Cyphert, F., & Boggs, D. L., (1981). Learning Opportunities in Higher Education for Older Persons. *Health Values*, 5, 20-25.
- Edward, C. P., & Patricia, G. R. (1986). *Promoting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J: Teachers College Press.
- Franks, L. J., Hughes, J.P., Phelps, L. H., & Williams, D. G. (1993).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on midwest college students by their grandparents and significant elders. *Educational Gerontology*, 19(3), 265-272.
- Harris, A. J., & Cole, W. E. (1985). **노년사회학** (최신덕 역). 서울: 경문사
- Holzman, J. M., & Akiyama, H. (1985). What children see: The aged

- on televis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25(1), 62-67.
- Isaacs, L. W., & Bearison, D. J. (1986).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rejudice against the age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3(3), 175-194.
- Kassab, C. (1999).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for youth. *Psychological report*, 84(1), 198.
- KOSIS국가통계포털 (2009). 연령별(전국)추계인구.
<http://www.kosis.kr/>에서 2009년 6월 18일 인출.
- Manheimer, R. J. (1997). Generation learning together.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8, 79-91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Y.: Oxford University Press, 276-321.
- Newman, s. (1980). *Rational for linking the generations together*. Pittsburgh, PA: Generation Together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 Rosencranz, H. A., & Mcnevin, T. E. (1969). A factor analysis for attitude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9, 55-59.
- Salkind, N. J. (1991). **인간발달의 이론** (정옥분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서 1985출판)
- Seefeldt, C. R., Jantz, R. K., Galper, A., & Serock, K. (1977). Children'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implic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 301-311.

Stein, A. H., & Fredrich, L. K. (1975). Impact of television on children youth. In E. M. Hetherington. Review of children development research Vol. 5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tephnie. S. B., Susan, J. E., & Catherine. F. S. (2000). Children's perceptions of Elders before and after a school-based intergenerational program. *Children Educational Gerontology*, 26(5), 677-689.

ABSTRACT

Analysis of infants' perception of the elderly who participate in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me and elderly participant's attitude to the programme.

Lee, Ji-Yo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at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 for facilitating inter-generation programme by observing the infants' perception of the elderly and the change in the elderly's attitude who participate in the inter-generation integration programme.

The main questions of this research are listed as follows.

1. How do the infants perceive the elderly ?
 - 1) Does it differs by the infants' gender ?
 - 2) Does it differs by the infants' age ?
 - 3) Does it differs by the elderly's age ?

2. How is the infants' preference of the elderly participant ?

3. How is the elderly participants's attitude ?

- 1) Does it differs by their gender ?
- 2) Does it differs by their age ?
- 3) Does it differs by their academic career ?
- 4) Does it differs by their participating duration ?

This research covers three hundred twenty five infants in the infant educational institutions in Seoul and Kyunggi area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me from 2nd of February, 2009 till 20th of February, 2009. Elderly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one by one for observing their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infants. With reference to the 'Attitude about elderly(Lee Sun-Ja, 1989)' and 'barometer of perceiving elderly(Kim Guang-Suk, 1987)', research tool originally created by Chung Mi-sil, 1996 was properly modified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d utilized.

In order to analyze the elderly participants' attitude, two hundred twenty five elderlies in the welfare institution located in Seoul and Kyunggi area were surveyed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generational programme from 22nd of December, 2008 till 30th of January, 2009. Survey paper was designed based on the workshop paper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infant-elderly ladies cooperation network(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 In addition to this survey research, five elderly participants and two social workers were chosen for the group interview to analyse the detailed cases which was not covered by the survey research.

The data collected in this research were analysed through SPSS Win 12.0 PROGRAM. In the purpose of observing the infants' perception and preferences of the elderly participants,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derived for the research questions and t-test and one-way ANOVA was preceded. In order to observe the change in elderly participants' attitude during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m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derived for the research questions and t-test and one-way ANOVA was preceded. Recorded interview data were fully documented, repeatedly reviewed and categorized by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fant participants in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me generally have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elderly. Especially, infant participants most positively perceive the elderly's social characteristics. This shows that infants' perception are influenced by the inter-personal network established through the elderly's social capacity and social life.

Second,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infants' perception of the elderly is shown by their gender. With respect to the infants' age, infants in the 3,4 years old more positively perceive the elderly

than those in 5 years old. Regarding the gender difference of the elderly participants, the infants more positively perceive the male elderly participants than the female elderly ones.

Third, the infants prefer the interactive activities which they can join together with the elderly participants. The preferred interactive activities include most of the activities which is currently done in the infant education places.

Fourth, the positive changes were shown in the elderly participants' attitude in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me especially in the aspect of health and appearance. However, they shows the most unsatisfied attitude in the economic aspect regarding the income yielded by participating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programme.

Fifth, female elderly participants are more positive than male elderly ones. Regarding the academic careers, those in the highschool graduation group show the most positive attitude. In addition, the elderly participants who stay more than three years in the programme show the most positive attitude.

부 록

부록 1.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검사

부록 2. 유아의 노인참여자에 대한 선호

부록 3.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노인의 삶의 태도 변화

부록 1. 노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검사

*이름 :

*연령:

*성별:

문 항		질 문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이 미 지	1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한다.	1	0
	2	할아버지, 할머니는 포근하고 마음이 따뜻하다.	1	0
	3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아주실 때 기분이 좋다.	1	0
	4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이 집에 오시면 함께 있고 싶다.	1	0
	5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은 행복하다.	1	0
	6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	1	0
	7	나도 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이 되고 싶다.	1	0
신 체 적 특 성	(8)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주 병이 나고 아프다.	1	0
	(9)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 엄마보다 잘 다친다.	1	0
	(10)	할아버지, 할머니는 느리게 움직이신다.	1	0
	11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깨끗하며 좋은 냄새가 난다.	1	0
	12	할아버지, 할머니는 멋쟁이다.	1	0
지 적 특 성	(13)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억을 잘 못하신다.	1	0
	14	할아버지, 할머니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놀이를 많이 알고 계신다.	1	0
	15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	1	0

성격적 특성	16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웃으신다.	1	0
	17	할아버지, 할머니는 재미있다.	1	0
	(18)	할아버지, 할머니는 화를 잘 내신다.	1	0
	19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절하시다.	1	0
	20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를 많이 안아 주신다.	1	0
사회적 특성	21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신다.	1	0
	22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빠나 엄마처럼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1	0
	23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1	0
	24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1	0

부록 2. 유아의 노인참여자에 대한 선호

*이름 :

*연령:

*성별:

1. 노인참여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놀이를 하면 재미있나요?

- ① 재미있어요. ② 재미없어요.

2. 노인참여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날이 기다려지나요?

- ① 기다려져요. ②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3. 노인참여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주일에 몇 번 왔으면 좋겠어요?

- ① 0번 ② 1번 ③ 2번 ④ 3번 ⑤ 4번 ⑥ 5번

4-1. 노인참여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와 어떤 놀이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4-2. 왜 그 놀이를 함께 하고 싶은가요?

5-1. 노인참여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엇을 해주실 때 가장 기분이 좋은가요?

5-2. 왜 그때 기분이 좋은가요?

6. 노인참여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엇을 해주실 때 기분이 좋지 않은가요?

6-2. 왜 그때 기분이 좋지 않은가요?

부록 3.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노인의 삶의 태도 변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한 어르신들의 삶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세대통합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곳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을 V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이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어르신께서 참여하여 주신 설문지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시간을 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지도교수 장 영 희
연구자 이 지 영

* 다음은 설문에 응해 주시는 어르신에 대한 일반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는 답과 틀린 답이 없으니 자신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르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어르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50~55세 ② 56~60세 ③ 61~65세
④ 66~70세 ⑤ 70~75세 ⑥ 76세 이상

3. 어르신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기타(_____)

4.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노인복지회관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서
② 지역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③ 종교단체나 지역사회 단체를 통해서
④ 기존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⑤ 기타 (_____)

I. 다음 문항은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한 어르신들의 정서·심리적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① 전혀 그렇 지않 다.	② 조금 그렇 지않 다.	③ 조금 그렇 다 .	④ 매우 그렇 다 .
1	일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활과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다.	①	②	③	④
2	퇴직 이후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어 인생이 보람차고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3	새로운 어르신 문화와 역할을 창조·주도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4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생각에 전문가가 된듯하다.	①	②	③	④
5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학습의 욕구가 생기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6	새롭고 어려운 일에도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복지관과 어린이집에 소속되어있다는 소속감의 기쁨이 생기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II. 다음 문항은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한 어르신들의 사회적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① 전혀 그렇 지않 다.	② 조금 그렇 지 않다.	③ 조금 그렇 다 .	④ 매우 그렇 다 .
8	가족이나 이웃, 친구 등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9	다른 노인들이 일을 하는 나의 모습을 부러워한다.	①	②	③	④
10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가족들에게 권위와 존경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12	어떠한 노인 일자리보다 유아와 함께 하는 일이 더 보람차며,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뿐 아니라 직업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Ⅲ. 다음 문항은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한 어르신들의 신체적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① 전혀 그렇 지않 다.	② 조금 그렇 지 않다.	③ 조금 그렇 다.	④ 매우 그렇 다.
12	자신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13	머리색도 신경 쓰이고 옷차림도 좀 더 단정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14	나이보다도 훨씬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15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얼굴표정이 밝아 졌다.	①	②	③	④

IV. 다음 문항은 세대통합프로그램 참여한 어르신들의 경제적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① 전혀 그렇 지않 다.	② 조금 그렇 지 않다.	③ 조금 그렇 다.	④ 매우 그렇 다.
16	활동비액수에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이 크다.	①	②	③	④
17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활동비액수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18	스스로 나의 용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한 것에 대하여 자식 앞에 당당해질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V. 다음 문항은 세대통합프로그램참한 어르신에 아동관의 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① 전혀 그렇 지않 다.	② 조금 그렇 지 않다.	③ 조금 그렇 다.	④ 매우 그렇 다.
19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나는 손주들의 양육을 담당 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20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된다.	①	②	③	④
21	유아는 모든 일을 도와주어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2	유아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능력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3	유아마다 가지고 있는 품성, 재능은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4	유아기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V. 다음 문항은 어르신들의 세대통합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적 기대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① 전혀 그렇 지않 다.	② 조금 그렇 지 않다.	③ 조금 그렇 다.	④ 매우 그렇 다.
25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노인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26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27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전통문화와 예의범절을 익히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28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노인과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